

'사이버 시대와 종교문화' 세미나

21세기 종교과제
시대맞는 교리해석
종교간 연대실천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사이버시대와 종교문화'를 주제로 개최한 종교지도자 세미나 모습.

가상 공간이 현실과 똑같은 비중으로 다가서는 사이버 시대에, 종교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7대 종교 학자들이 '사이버 시대와 종교 문화'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찾은 해답은, 먼저 시대에 맞는 교리 해석과 종교간 연대를 실천하고, 나아가 가상 공간의 본질을 밝히고 윤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서 종교계는 변혁의 중심에서 사이버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전망하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시대의 종교 여건과 그 역할을 면밀히 검토한 윤원철(서울대)·김홍영(장남대) 교수는 "종교계는 교육과 훈련을 토대로 가상과 현실의 총체적 의미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가치관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리를 정립시켜 인성(人情) 넘치는 인터넷을 만드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원광대에서 1학년 38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및 태도'를 설문 조사 결과, 종교성이 네티즌(인터넷 사용자)의 일탈을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사이버 문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여자가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번 세미나에서 종교 학자들은 "사이버 시대에서는 기성 종교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유에프오(UFO)·천국의 문(Haven's Gate)·파룬궁 등과 같은 신종 종교가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성 종교계는 정통성만을 강조하며,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화재 보호법
개정 제언



최순용
전주지검 검사

불교문화재의 절도나 암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교계와 관계 당국이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 전문검사'로 통하는 전주지방검찰청 최순용 검사의 의견을 들어본다. 고개에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비지정 문화재 보호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는 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편집자)

청룡사 감로탱 '보물'로



○경기도 안성 청룡사 감로탱.

경기도 안성 청룡사 감로탱은 보물로, 전남 나주 불회사 원진국사 부도, 전남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 전남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 복장불서 등은 도유형문화재로 각각 지정된다.

전라남도에서 지정 예고한 불회사 원진국사 부도는 1317년 조성돼 원사·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능가사 사천왕상은 95년 복원 과정에서 '1666년'의 조성 연대가 밝혀진 것으로, 라마교의 영향을 받은 독특한 양식을 띠고 있다.

중생박물관
중국 문화재
점진시

국립중앙박물관은 '6월의 문화재'로 박물관 소장 석조반가사유삼존상 등 불상 3점을 비롯해 모두 7점의 중국 유물을 선정, 전시했다. 이번엔 전시된 석조반가사유삼존상, 석조미륵교각상, 석조여래입상 등은 삼국시대의 불교조각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던 것들로 북제(550-577)와 북주(557-580) 시대의 불상들이며, 북위 시대 조각에서 수·당 조각으로 이행되는 단계의 양식적 특징인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 보문사에서 출토된 석조보살좌상.

대전 보문사지 석조보살좌상 출토

대전시 중구 무수동 보문사지(시가지남쪽 제4호) 발굴현장에서 라마풍 석조보살좌상이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단장 김정기)은 5월 30일 고려 말 양식을 보이는 석조보살좌상과 '강희(康熙)16년(1677년·조선 성종조)' 명문이 있는 암막새 등 1차 발굴 유물을 공개했다. 석조보살좌상은 라마계통의 우주들과 유언하고 풍만한 신체를 보이고 있다.

'보조사상' 13집 출간 보조사상연구원은 지눌 스님의 사상을 집중 탐구한 <보조사상> 제13집을 출간했다. 이번 논문집에는 △<진심적설>의 한 고철(한기두) △보조사상 지눌의 <원통성불론> 상석(상재룡)을 비롯해 △선종사에서 간화선의 위치(혜원 스님) △간화선 형성의 사회적 배경(종호 스님) △대혜 간화선의 특징(인경 스님) △대혜의 목조건 비관(김호규) △돈오점수의 수행법과 '무자' 화두 참구법의 관계에 대한 대혜종교와 보조사상의 견해 비교(이병욱) 등 논문 13편과 논평문 등이 실려 있다. (02)733-5311

"문화재 사범 처벌 강화"

따라서 필자는 지정문화재나 도굴된 문화재 발견 당시의 은닉 또는 보관자를 그 은닉, 보관의 원인과 상관없이 처벌하는 특별규정을 들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문화재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일타콘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콘스님의 열반...
콘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세키오리다.

오 계 이야기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의 필독서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5계! 계율을 잘 지켜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면 고요하고 맑은 선정을 이루어 지혜의 빛을 발하게 되고,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큰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 책은 일타콘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염불·간경·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토다 신국판 / 값 5,000원
- 기도 (祈禱) 신국판 / 값 5,000원
- 생활 속의 기도법 4x6판 / 값 3,500원
- 불자의 기본예절 4x6판 / 값 3,500원
- 온화와 인과응보 이야기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 - 5 신국판 / 각권 6,000원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자기계 물어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법궁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 감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